

# 세트피스로 '빚장 수비' 뚫어라



## 김은중호, 내일 오전 6시 이탈리아와 U-20 결승행격돌

### 伊 측면 수비 약점...김용학·강상윤 등 2선 발끝 기대 6골 득점 1위 카사데이·판타지스타 발단치 경계해야

김은중호가 전통의 '빚장수비'를 구사하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9일 오전 6시 아르헨티나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이탈리아와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결승전을 치른다. 직전인 2019년 대회에서 준우승 신화를 쓴 한국은 이탈리아를 넘으면 2회 연속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대업을 달성한다. 3회 연속으로 준결승에 오른 이탈리

아는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의 이탈리아는 김은중호가 앞서 경험한 어떤 팀보다도 단단하다. 이탈리아 축구가 전통적으로 구사해 온 '빚장수비'를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선부르게 전진하지 않고 자신들의 진영을 지키며 보수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장신 선수 머리를 겨냥한 크로스나 세트피스로 승부를 결정짓는다. 이탈리아가 이번 대회에 넣은 11골 중 5골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세트피스로만 8골 중 4골을 넣은 김은중호와 비슷한 스타일의 팀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장신 선수가 머리로 공을 떨구면 다른 선수가 이를 골로 결정짓는 장면도 몇 차례 연출하는 등 이탈리아가 더 다채로운 공격 공격을 구사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는 이탈리아 득점의 절반을 넘는 6골을 책임지며 대회 득점 랭킹 1위를 달리는 체사레 카사데이이다. 키 188cm의 장신 미드필더인 카사데이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늘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린다. 2선 공격수 토마스 발단치 역시 김은중호의 경계 대상이다. 빠른 이대일 패스와 연계 플레이로 이탈리아 공격에 다양성을 불어넣는 '판타지스타' 유형의 선수다. 이탈리아의 약점으로는 '측면'이 지

목된다. 이탈리아가 이번 대회에서 패배한 유일한 경기인 나이지리아전을 보면 나이지리아의 2득점은 측면 크로스나 돌파로 만들어졌다. 세트피스 득점력이 주목받기 전부터 김은중호의 강점으로 꼽히던 강상윤(전북), 강성진(서울), 김용학(포르티모넨스) 등 2선 공격 자원들이 힘을 내줘야 할 때라는 얘기다. 빠른 회복과 정신력도 중요하다.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하루 늦게 8강전을 치른 데다 연장전까지 소화했다. 다만, 이탈리아 역시 토너먼트 들어서는 후반 중반 이후로는 힘이 부치는 모습을 보인다. 워낙 수비가 단단한 두 팀의 스타일을 놓고 보면 경기 막판 먼저 흔들리는 팀이 패배하는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연합뉴스

## 전갑수 회장, 소년체전 농구 2연패 수피어여중 격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7일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 중등부 농구 2연패를 달성한 수피어여중 농구선수단을 방문, 격려금을 전달했다. 전회장은 "광주를 대표해 월등한 경기력으로 2연패 쾌거를 이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이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WBC 음주 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

# KBO '벌금·사회봉사' 징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기간에 음주해 논란을 빚은 김광현(SSG), 이용찬(NC), 정철원(두산)에게 사회봉사와 벌금을 부과했다. KBO는 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세 선수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김광현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제재금 500만원, 이용찬과 정철원은 사회봉사 40시간과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처벌 근거는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 KBO 규약에서 찾았다. KBO는 "조사 결과 3월 7일 선수단이 WBC가 열린 일본 도쿄에 도착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 중국전 전까지 대회 공식 기간 중 김광현은 7일, 일본전(10일) 종료 직후인 11일(시와 1시) 사이에 총 두 차례 유증주점에 출입했다"며 "정철원은 11일 오전 한 차례 김광현과 동석했고, 이용찬은 11일 두 선수와는 별도로 해당 장소에 출입했다"고 밝혔다. KBO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과 경기력을 보인 2023 WBC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음주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보다 세분화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U-24)에 발탁된 광주FC C주전 미드필더 정호연.

## "구단과 나라 대표하는 만큼 좋은 모습 보일 것"

### 광주FC 정호연, AG 태극마크...15, 17일 中 평가전 출전

프로축구 광주FC의 미드필더 정호연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U-24)에 발탁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5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비 중국 원정 친선경기에서 나설 28인의 U-24 축구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광주에선 팀의 주전 미드필더 정호연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광주 유스 출신으로 단국대를 거쳐 지난 시즌 광주에 합류된 정호연은 프

로 첫 해부터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수비, 안정된 경기 조율을 선보이며 36경기 1골 2도움을 기록, 팀의 주전으로 발돋움했다. 이번 시즌 역시 팀의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히 수행, 16경기에서 2도움을 기록 중이며 K리그 2-3월 영플레이어상까지 수상하는 등 리그내에서도 유망한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다. 또 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올

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에게 꾸준한 부름을 받고 있다. 정호연은 "구단을 대표해, 나라를 위해 뭘 수 있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광이다. 그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큰 자신감을 갖고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오는 1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평가전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지난 6일 열린 제20회 예전 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2위에 오른 한국 대표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윤, 김동진, 배건울, 나마디 조엘진. <대한육상연맹 제공>

## 전남체고 배건울, 亞Jr 육상 '銀3'

### 개인전 400m·1,600m 혼성 계주·1,600m 계주 '銀'

한국 육상 남자 단거리 유망주들이 아시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20세 미만) 400m 계주 은메달을 합작했다. 김정윤(경남체고), 김동진(대구체고), 배건울(전남체고), 나마디 조엘진(김포제일공고)이 이어 달린 한국 대표팀은 6일 제20회 예전 아시아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4초32의 한국 고등부 신기록(종전 4초56)을 세웠다. 마지막 주자 조엘진은 네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중국과 태국이 실격 판정을 받으면서 한국이 2위로 올라섰다. 4일 남자 400m(46초73)와 5일 1,600m 혼성 계주(3분28초30)에서 2위를 차지한 배건울은 사흘 연속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 클럽하우스 광주 이전 AI페퍼스, 연고지 정착

### 플로깅 행사·팬사인회...팬心 속으로 '한걸음 더'

여자 프로 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배구단이 연고지인 광주로 완벽하게 정착했다. AI페퍼스는 7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광주시로 클럽하우스 이전을 완료했다"며 "훈련장과 선수들의 트레이닝 시설을 마련했다. 숙소는 페퍼스타디움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의 아파트 시설을 활용하며, 아파트 내 선수 전용 식당과 치료실 등도 함께 갖췄다"고 밝혔다.

AI페퍼스는 2021년 9월 공식 출범한 후 곧바로 2021-22시즌 도드람 V리그에 참가하기 위해 서둘러 훈련 시설을 마련해야 했다. 이 때문에 연고지인 광주시가 아닌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시설물을 대여해 사용해 왔다. 이번 이전으로 선수들의 이동 거리가 연간 약 2천km가량 단축돼, 선수들의 컨디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선수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클럽하우스 이전에 따라 AI페퍼스는 연고지 지역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페퍼스타디움 내 마련된 트레이닝 시설 전경. (AI페퍼스 배구단 제공)

내 배구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선수단과 광주시민 300여 명이 함께 지역 환경 정화를 위해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행사를 실시한다. 선수단이 지내게 될 숙소 인근 시민을 위한 팬사인회 등의 행사도 계획 중이다. 또한 광주 지역의 아마추어 배

구팀 및 AI페퍼스가 운영 중인 유소년 클럽과도 더욱 긴밀한 교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AI페퍼스 단장은 "AI페퍼스의 연고지인 광주시에 진정한 의미의 정착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이전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배구 문화 정착 및 저변 확대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지역 팬들에게도 한층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2024 파리올림픽 기념주화 5종 출시

### 베르사유 궁전 금화 594만원

2024 파리하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공식 주화가 국내에 출시됐다. 파리올림픽 기념주화는 ▲베르사유 궁전 금화(31.1g) ▲프랑스 문화유산을 담은 금화 3종 세트(7.78g) ▲브레이킹, 골프 등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 중 5개를 표현한 은화 5종 세트(22.2g) ▲파리올림픽 마스코트인 '프리즈'가 들어간 마스코트 금화(7.78g)와 마스코트 은화(35g) 5종으로 제작됐다. 기념주화 가격은 베르사유 궁전 금



화 594만원, 금화 3종 세트 462만원, 은화 5종 세트 59만4천원, 마스코트 금화 154만원, 마스코트 은화 15만4천원이다. /연합뉴스